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상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28장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름에 관하여

『산상설교』 상권 제28장, 인쇄 366~377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5:38~42

> ❓ **억울한 일을 당해도 발끈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될 수 있을까? 된다면 어떻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앞 장에서 다룬 뺨·속옷·오 리·구제의 실례로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세부 사항을 두고 다투다가 그 밑에 깔린 큰 원칙을 놓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 원칙은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 곧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이다. 그는 바울과 조지 뮬러의 고백으로 이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 준다. 이어서 이것이 세상의 신사도나 스포츠맨 정신으로는 도달할 수 없고, 중생한 사람에게만 가능하다고 못 박는다. 그다음 자아를 세 수준에서 다룬다. 실제적 수준(정직한 자기 검토), 교리적 수준(타락, 하나님과의 분리, 성결), 가장 높은 수준(성육신과 십자가)이다. 마지막으로 이 삶은 우리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오직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소망으로 맺는다.

📜 절별 정리

📜 1. 세부 논쟁이 아니라 원칙: 나는 어떤 사람인가

로이드 존스는 먼저 이 대목을 읽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비극을 짚는다. 뺨을 정말 돌려 대야 하는지, 소송에서 겉옷까지 주어야 하는지 같은 세부를 두고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본문의 큰 원칙인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를 보지 못하는

중요한 까닭은 그것이 사람됨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상설교는 순서대로 읽어야 하고, 팔복의 가르침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은 이 구체적 명령을 따질 자격이 없다. 그는 또 몇십 년 전부터 이어진 주장, 곧 산상설교가 교리 없는 실천 교훈이자 윤리 선언서라는 견해를 반박한다. 산상설교는 교리로 가득하다. 중요한 것은 뺨을 돌려 대는 행동 자체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에 있느냐는 것이다.
38~42절은 자기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으로(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43절 이하는 긍정적으로(원수를 사랑하라) 보여 준다.

1. 세부 논쟁에 빠지면 원칙을 놓친다
2. 주님의 관심은 행함보다 사람됨이다
3. 팔복을 통과해야 이 명령을 다룰 수 있다
4. 산상설교는 윤리 선언서가 아니라 교리다
5. 38~42절은 부정적, 43절 이하는 긍정적 제시

> **마태복음 5:38~42**
> 보복하지 않는 네 실례. 이 장의 본문
>
> 38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40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 **마태복음 5:44**
> 같은 원칙의 긍정적 표현(원수 사랑과 기도)
>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 2. 상처받을 수 없는 상태: 바울과 조지 뮬러

주님이 여기서 그리는 사람은 자아에 대해 병적으로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다. 자아가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균형이 무너지는 상태가 사라져야 한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전혀 상처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부르고, 가장 철저한 상태라고 말한다. 바울은 남의 판단도 자기의 판단도 매우 작은 일로 여기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래서 상처받을 수 없는 자리에 섰다. 이어 그는 조지 뮬러의 고백을 이 본문의 가장 완벽한 요약으로 든다. 뮬러는 자기 의견, 취향, 의지에 대해 죽고,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대해 죽고, 형제와 친구의 칭찬과 꾸지람에 대해 죽은 날이 있었으며, 그 뒤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에만 마음을 쏟았다고 했다. 로이드 존스는 여기에 단계가 있다고 본다. 세상 여론에서 벗어나기는 비교적 쉽다. 위대한 예술가들도 “세상은 무지해서 이해 못 한다”며 여론을 무시한다. 더 어려운 것은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의 평가다.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고 시인하고 판단하는 일에 대해 죽는 것이다. 많은 전기 속 인물들이 앞의 두 단계는 넘었지만, 이 마지막 싸움은 거의 이길 수 없는 전투였다고 고백한다.

1. 자아의 병적 민감성이 제거되어야 한다
2. 목표는 '상처받을 수 없는 상태'다
3. 바울은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다
4. 뮬러: 세상, 친구, 그리고 자기에 대해 죽음
5.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평가'에 대해 죽는 것

> **고린도전서 4:3**
>
> 남의 판단도 자기 판단도 내려놓은 바울. 상처받지 않는 상태의 모범
>
>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아는 생활의 모든 불행의 주된 원인입니다.”

📜 3.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다: 신사, 스포츠맨, 그리고 중생

로이드 존스의 다음 요점은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뿐이라는 것이다. 세상은 자기 명예와 이름을 지키려고 싸우는 사람을 '신사'라 부른다. 오늘날 신사가 모욕을 받고도 결투하지 않는 것은 법이 금하기 때문일 뿐,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어 한다. 이 명예 관념은 언제나 자기방어를 뜻하고, 개인뿐 아니라 국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세상은 자기를 주장하고 늘 자기 명예를 변호할 준비가 된 공격적인 사람을 칭찬한다. 세상은 사람이 도움 없이도 이 가르침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게 하려 한다. 그 대표가 스포츠맨 정신이다. 그러나 경기장에서는 양보하고 자기를 생각하지 않던 유명 운동선수가 이혼 법정에 서면 기본적인 예의, 진실, 정의감, 페어플레이마저 잃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삶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새 피조물만 살 수 있다. 이것이 이 구절 속에 들어 있는 중생의 교리다.

1. 세상의 명예는 늘 자기방어를 뜻한다
2. 결투를 안 하는 건 법 때문일 뿐이다
3. 스포츠맨 정신은 이혼 법정에서 무너진다
4. 이 삶은 중생한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5. 새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 **갈라디아서 2:20**
> 자기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만 이렇게 산다
>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 **고린도후서 5:17**
> '새 피조물'. 철저한 변화, 곧 중생이 전제임
>
>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 4. 실제적 처방: 자아를 정직하게 대면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로이드 존스는 먼저 실제적 차원에서 답한다. 첫째, 구실을 대거나 우회하지 말고 자아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그것도 막연하게가 아니라 구체적인 순간에 해야 한다. 짜증, 불평, 원망, '내가 부당하게 당했다'는 방어 심리가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왜 이것이 나를 흔드는가, 참된 대의 때문인가 아니면 나 자신 때문인가. 양심이 “너의 교만과 이기심 때문”이라고 말하면 고통스러워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다. 둘째, 자아가 삶을 지배하는 '범위'를 인식해야 한다. 일상의 일, 사람들과의 관계, 옷차림과 용모, 남에게 주는 인상,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인지 내 영광인지를 따져 보면 자아가 침투한 범위에 놀라게 된다. 지난 한 주간의 짜증, 성냄, 부끄러운 말을 하나씩 돌아보면 거의 다 자아로 귀결된다. “다른 사람 탓”이라는 반론에 그는 이렇게 답한다. 상대도 그의 자아 때문에 그렇게 했고 나도 같은 이유로 상처를 느낀다. 내가 바른 태도를 가졌다면 그를 불쌍히 여겨 기도했을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책임은 내게 있다.

1. 자아 문제를 구실 없이 정면으로 대하라
2.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자신에게 물어라
3. 대의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4. 자아가 삶에 침투한 범위를 살펴라
5. 남 탓이라도 내 반응의 뿌리는 자아다

> **마태복음 5:44**
> 바른 태도라면 상처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 5. 교리로 본 자아: 타락, 하나님과의 분리, 성결

이제 그는 더 높은 수준에서, 곧 교리적으로 자아를 본다. 성경에 따르면 인류 타락의 책임은 자아에 있다. 마귀는 자아의 힘을 알 만큼 영리해서 “하나님은 네게 공평하지 않다, 너는 정당한 불만이 있다”고 속삭였고, 사람은 이에 동의했다. 타락이 없었다면 오늘날 각국 문제를 풀려고 국제회의를 열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자아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 대신 나를 보좌에 앉히는 일이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과 갈라놓는 것은 늘 자아이고, 모든 비참의 궁극 원인은 이 분리다. 반대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땅굴에 있든, 차꼬에 묶이든, 화형대에 서든 행복하다. 역대 성도들의 체험이 그것을 증언한다. 사람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어졌다. 그러므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거나 자기 이익을 지키려는 욕망은 죄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여기서 그는 성결을 다시 정의한다. 성결은 어떤 일은 하고 어떤 일은 안 하는 문제가 아니다. 죄로 여겨지는 일을 하지 않아도 자아의 교만으로 가득하다면 성결과 거리가 멀다. 성결의 본질은 뮬러처럼 자아에 대해 완전히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데 있다.

1. 타락은 자아에 호소한 유혹에서 시작됐다
2. 자아는 하나님 대신 나를 보좌에 앉힌다
3. 불행의 궁극 원인은 하나님과의 분리다
4. 자기 영광과 자기 보호 욕망은 죄다
5. 성결은 행동 목록이 아니라 자아에 대한 태도다

> **창세기 3:4~5**
>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마귀의 속삭임. 자아가 타락의 통로임
>
>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 **마가복음 12:30**
> 마음·목숨·뜻·힘을 다한 하나님 사랑. 인간의 본래 목적
>
>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성결은 결국 이 자아 중심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 6. 그리스도로 본 자아: 성육신에서 십자가까지

가장 높은 수준은 그리스도에 비추어 자아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궁극 목적은 인류를 자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다.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삶이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난다. 영원히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그 권리를 고집하지 않으셨다. 하늘 영광을 떠나 말구유로 오셨다. 아들이 자기를 제쳐 놓지 않으셨다면 성육신은 없었다. 이 땅에서도 그분은 자기 말과 일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하시며 모든 일에서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존하셨다. 그 절정은 십자가다. 죄도 없고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는 분이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으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맡기셨다. 이것이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 대는 삶의 최고 실례다. 신약의 논리는 분명하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는다면 내 최대 소원은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이어야 한다. 그분이 죽으신 목적은 용서와 지옥에서의 구원만이 아니다. 그분을 맏아들로 삼아 그 형상을 닮은 새 백성, 새 인간성을 빚으시는 것이다. 바울도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이유를, 산 자들이 더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1. 그리스도는 인류를 자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2. 성육신은 자기를 제쳐 놓으신 결과다
3. 지상의 삶은 아버지께 대한 전적 의존이었다
4. 십자가: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심
5. 목적은 그분 형상을 닮은 새 백성이다

> **빌립보서 2:5~8**
> 하나님과 동등하나 자기를 비우심. "이 마음을 품으라"
>
>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한복음 14:10

말씀과 일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님. 아버지께 의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히브리서 10:7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기 뜻의 포기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23

욕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고 심판자께 맡기심. 본문의 최고 실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로마서 8:29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새 백성, 그리스도는 맏아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14~15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게 하려고 죽으심

[14]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참고: 설교에서 에베소서로 소개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라는 문구는 로마서 8:29의 말씀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만드신 바”는 에베소서 2:10이다. 두 구절이 한데 묶여 인용된 것으로 읽는다.)

“자아는 하나님 대신 나를 보좌위에 올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 7. 부르심과 소망: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신다

로이드 존스는 다시 본문의 네 실례로 돌아와 우리가 부름받은 삶을 그린다. 오른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돌려 댈 준비가 되어 있다. 소송으로 속옷을 빼앗기면 겉옷도 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오 리를 강요당하면 두 배를 간다. 누가 구하면 “이건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궁핍한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돕겠다”고 말한다. 자아를 끝내고 하나님의 영광만 관심하는 삶이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덧붙인다. 우리 힘으로 이런 삶을 살려 하면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할 운명이다.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고 약속대로 성령을 교회와 믿는 이들에게 보내 그들 안에 거하시며 일하신다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을 가능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는 묻는다. 조지 뮬러가 자기에 대해 죽을 수 있었다면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자아는 큰 고통과 불행으로 이끌 뿐 아니라, 결국 십자가에서 이루신 아들의 사역을 부정해 버릴 만큼 악하기 때문이다.

1. 네 실례는 자아에 대해 죽은 삶의 모습이다
2.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3. 우리 힘으로는 시작도 전에 실패한다
4. 소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다
5. 자아는 십자가의 사역을 부정한다

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40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5:15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삶이 부르심의 내용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 오해와 반론

📖 용어

자기 부인

자기 권리, 자기 평가, 자기 이익을 붙드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자아의 민감성

작은 일에도 '내가 무시당했다'며 곤두서는 마음 상태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병적인 상태로 본다.

중생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아 사람의 뿌리가 바뀌는 일, 곧 '다시 태어남'이다.

새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부터 새롭게 지어진 사람을 가리키는 바울의 표현이다.

타락

첫 사람이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유혹에 동의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사건이다.

성결(성화)
그리스도인이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자아 중심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정의된다.

성육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일이다.

팔복
산상설교 첫머리(마태복음 5:3~12)의 여덟 가지 복이다. 이후 명령들을 실천할 사람의 성품을 먼저 그린다.

- **점검 질문** ⌄

💬 **청년의 삶으로** ⌄

✅ **이 장의 결론** ⌃

- 뺨·속옷·오 리·구제의 실례 밑에 있는 원칙은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이다.
- 이 삶은 신사도나 스포츠맨 정신이 아니라 중생한 사람만 살 수 있다.
- 자아는 타락의 통로이자 하나님과의 분리, 모든 불행의 뿌리다. 성결은 이 자아 중심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 그리스도는 성육신부터 십자가까지 자기를 돌보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가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게 하려고 죽으셨다.
- 우리 힘으로는 반드시 실패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이 삶을 가능하게 하신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